

정정요구 사실은 공시되는데 지적 내용은 어디에 있나

DART는 요구 사실과 회사가 고친 정오표를 보여 주지만 감독당국의 항목별 요구서는 공개 목록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의 8월 28일 간담회 자료, DART 정정신고서 안내와 자본시장법의 정정요구·공시 조항을 대조했습니다.

발행	2026.08.30	연번	2026_70
읽는 시간	7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자료 기준일	2026.08.30	검증	공식 원문·현행 법령 대조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차등화의 핵심을 정정요구 횟수보다 투자자가 어느 항목을 다시 읽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느냐에서 본다. 요구 사실은 공시되고 회사가 고친 결과는 정오표로 드러나지만, 감독당국의 항목별 지적은 공개 목록이 아니다. 2단계가 '반영 미비' 한 문장에 그치면 심사 효율은 높아져도 투자자의 검산 가능성은 늘지 않는다.

CONTENTS

이 글의 순서

- 01 연구소의 판단
- 02 확정된 사실
- 03 왜 이런 구조인가
- 04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 05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 06 지금 할 일
- 07 갈림길
- 08 함께 읽을 것
- 09 근거와 검증

금융감독원은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해서 미흡한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는 DART에서 요구 사실과 정정신고서의 정오표를 볼 수 있지만, 당국이 보낸 항목별 지적 자체는 법정 비치·공시 문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01 · 확정된 사실

확정된 사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8월 28일 IPO·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간담회에서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에 정정요구 차등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정정요구	상세 요구서	현행 방식 유지로 보도
반복 미흡	반영 미비 취지	개별 요구 반복 기재 축소
공개되는 사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DART 제목으로 확인
회사가 고친 내용	정오표	정정신고서 맨 앞
법정 공시문서	신고서·설명서·실적보고서	정정요구서는 열거되지 않음
세부 시행기준	미확정	시행일·2단계 문안 공개 전

금융감독원 발표는 충실한 신고서는 신속하게 심사하고 중요사항 기재가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에는 정정요구를 차등화해 심사 효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도된 운영안은 첫 요구에는 보완사항을 상세히 보내고, 다시 부실한 경우에는 개별 항목을 반복해 적는 대신 반영이 미비하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2단계 기준과 실제 DART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DART 안내에 따르면 정정요구 사실은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라는 제목으로 공시되고, 회사가 낸 정정신고서 앞에는 정정 사유와 내용을 모은 정오표가 붙습니다.

02 · 왜 이런 구조인가

왜 이런 구조인가

자본시장법 제122조는 형식 미비, 중요사항의 거짓·누락 또는 불분명한 기재가 합리적 투자판단을 해칠 수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정요구가 나오면 신고서는 요구일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고 정정신고서 수리 뒤 효력발생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발행회사와 주관사는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부담합니다.

투자자가 보는 문서는 요구 사실, 회사가 고친 정오표와 신고서 본문입니다. 당국의 요구서 원문은 자본시장법 제129조가 열거한 비치·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오표에는 회사가 고친 항목이 남지만 당국이 요구했어도 고치지 않은 부분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 미흡 표시만으로는 어느 항목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03 ·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IPO나 유상증자에 청약하려는 투자자입니다. 정정요구 횟수는 공시 목록에서 셀 수 있지만 요구서의 항목별 지적은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청약 일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정정신고서가 다시 수리된 시점부터 효력발생 기간을 계산하므로 최초 공시의 청약일만 보면 일정 변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복 미흡 공시가 붙는 첫 사례에서는 정오표와 신고서 본문을 직전 제출본과 비교해야 합니다. 표시만으로 누락된 쟁점을 알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04 ·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 2단계 기준

중요 보완사항 몇 건 또는 어느 수준의 미비부터 차등화하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니다.

02 · DART 문안

정정요구 횟수나 미비 항목의 구분을 함께 표시할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니다.

03 · 시행 시점

제도 도입 방침은 발표됐지만 적용 시작일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04 · 요구서 공개

항목별 요구서를 법정 공시문서로 추가하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니다.

05 · 지금 할 일

지금 할 일

국민	• DART에서 회사명과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함께 검색해 요구 횟수와 날짜를 확인합니다. • 가장 최근 정정신고서 맨 앞의 정오표를 직전 제출본과 비교하고 효력발생일·청약일 변경을 확인합니다. • 반복 미흡 표시가 있으면 투자위험, 자금 사용 목적, 추정 실적과 이해관계자 거래 항목을 다시 읽습니다.
금융회사	• 정오표에 바뀐 문장뿐 아니라 정정 사유와 관련 목차를 항목 단위로 연결합니다. • 주관사는 청약 일정 변경과 핵심 정정항목을 같은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당국	• 2단계 공시 문안에 정정요구 횟수와 미비 항목의 분류를 함께 표시합니다. • 차등화 기준과 첫 적용 시점, 정정요구서 공개 여부를 시행 전에 설명합니다.

갈림길**반복 미흡 공시가 읽을 곳을 알려 주는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2단계 DART 문안과 미비 항목 분류의 공개 범위

A 취지 한 문장만 표시한다 투자자는 반복 미흡 사실만 알고 어느 항목을 다시 읽어야 하는지 신고서 전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B 횟수와 항목을 함께 표시한다 투자위험·자금 사용·실적 추정 등 다시 확인할 위치를 정오표에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

여기를 보면 아는가 · 첫 2단계 적용 건의 DART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공시와 금융감독원 설명자료의 문안 예시를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3개의 연결 지식**

[넥서스 브리프 자사 펀드의 20% 초과 손실만 적으면 무엇이 빠지나](#) ↗

[금융제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활용법](#) ↗

근거와 검증**확인한 사실·숫자 5건**

01	1차 · 반복적으로 미흡한 신고서의 정정요구 차등화 도입 방침 금융감독원 2026년 8월 28일 자료(KDI 전제)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	--

02	1차 · 정정요구 사실 공시와 정정신고서 앞 정오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신고서 이용 안내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3	1차 · 정정요구 사유·효력 정지·정정신고서 수리 구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122조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4	1차 · 비치·공시 대상 문서의 열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9조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05	2차 · 첫 요구는 상세, 반복 미흡 때는 반영 미비 취지로 차등화하는 운영안 헤럴드경제 2026년 8월 28일 보도 · 확인 2026-08-30 · 확인 2026-08-30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DART의 2단계 정정요구 공시에서 요구 횟수, 미비 항목 분류와 정오표의 정정 사유가 실제로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금융감독원·발행회사·주관 증권사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특정 공모주나 유상증자 청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